



생생리포트

1/4분기 서울시 소비자 체감경기와 관심 경제 이슈

- I. 최근의 서울경제 여건
- II. 서울의 1/4분기 소비자 체감경기
- III. 서울시민의 관심 경제 이슈

서울연구원 시민경제연구실 연구위원
최봉 cbong@si.re.kr

생생리포트

1/4분기 서울시 소비자 체감경기와 관심 경제 이슈

*이 생생리포트는 서울연구원 정책리포트 211호를 인용한 것입니다(최봉, 2016, “1/4분기 서울시 소비자 체감경기와 관심 경제 이슈”, 서울연구원 정책리포트, 211호)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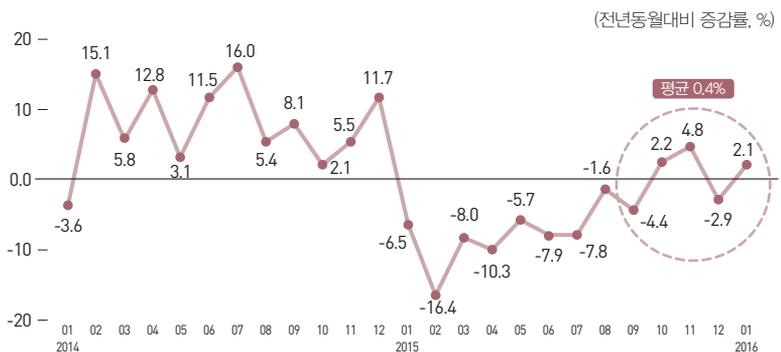
I. 최근의 서울경제 여건

서울의 산업생산과 소비는 회복세이나 고용은 아직 정체

2016년 1월 서울의「산업생산지수」는 전년 대비 성장

- 서울의 「산업생산지수」는 2015년 12월에 전년 동월 대비 -2.9%로 마감하였으나, 2016년 1월 기준 2.1% 증가로 돌아서며 반등에 성공
 - 서울과 달리 전국 제조업생산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2.1%의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하여, 상대적으로 서울의 성장세가 두드러지는 것으로 판단
 - 1월 들어 반등에 성공하였으나 최근 5개월 평균은 전년 동월 대비 0.4%로 정체 상태
- 부문별로 자본재는 5.4%, 소비재는 3.0%의 증가율을 보인 반면, 중간재는 5.4% 감소
 - 최근 5개월 기준으로 자본재는 4.8%의 감소율을 보였으나, 중간재는 8.5%의 높은 증가율을 기록하여 대조적

① 최근 2개월 수치에는 잠정치(p)가 포함되어 있으며, 추후 수정될 수 있음.
매년 1월분 통계 공표(2월말 또는 3월초) 시에는 연간보정으로 인해 최근 몇 개년 자료가 수정될 수 있음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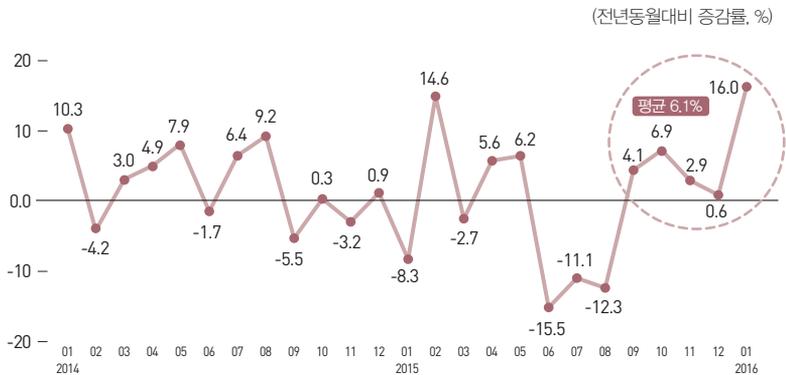


자료 통계청, 광업제조업동향조사^①

(그림 1) 서울의 산업생산지수 증감률(제조업)

「대형소매점 판매액지수」는 전년 동월 대비 16.0% 성장

- 내수로 대표되는 서울의 「대형소매점 판매액지수」는 2016년 1월 전년 동월 대비 16.0%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는 등 최근 5개월간 평균 6.1% 증가
 - 2015년 여름 메르스 사태로 극심한 침체를 겪었던 판매액은 가을 반등 후 연말까지 다소 하락하였으나, 2016년 초 다시 급증하는 모습
- 백화점 판매액은 최근 5개월간 평균 2.4% 증가, 대형마트 판매액은 평균 10.1%의 높은 증가
 - 백화점 판매액이 2015년 10월과 2016년 1월 두 번의 큰 증가세에 힘입어 성장하였다면, 대형마트 판매액은 2015년 9월 이후 꾸준히 높은 성장세 기록
 - 「대형소매점 판매액」은 2016년 가을부터 대형마트를 중심으로 성장세를 이어오고 있으나 백화점 등은 변동성을 보이고 있으므로, 앞으로 서울시민의 이 같은 소비심리가 유지될 지가 관건



자료 통계청, 서비스업동향조사

〈그림 2〉 서울의 대형소매점 판매액 증감률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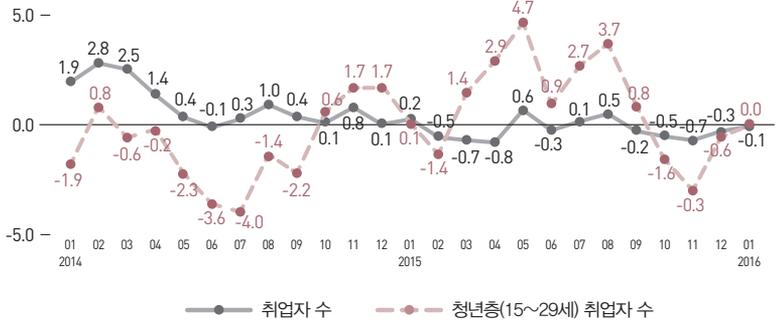
전체 「취업자 수」는 작년 가을 이후 유지 상태이나 청년층은 월별로 큰 차이

- 2016년 1월 서울의 「취업자 수」는 전년 동월 대비 0.1% 감소한 511만 명
 - 「취업자 수」의 증감률은 5개월 연속 마이너스이나, 2015년 12월 -0.3%,

2016년 1월 -0.1%로 차츰 둔화

- 서울의 청년층 취업자 수는 전년 동월과 같은 88만 명을 기록하였으나 월별로 심한 변동 추세
 - 청년층의 취업자 수는 최근 5개월 평균 -0.9%였으며 2016년 1월 기준으로도 전년에 비해 큰 차이가 없었으나, 2015년 5월 4.7%에서 2015년 11월 -3.0%까지 떨어져 상대적으로 변동폭이 큰 것으로 조사
 - 특히 최근 4개월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꾸준한 성장이 이루어지도록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

(전년동월대비 증감률, %)



자료 통계청, 경제활동인구조사

〈그림 3〉 서울의 취업자 수 증감률

II. 서울의 1/4분기 소비자 체감경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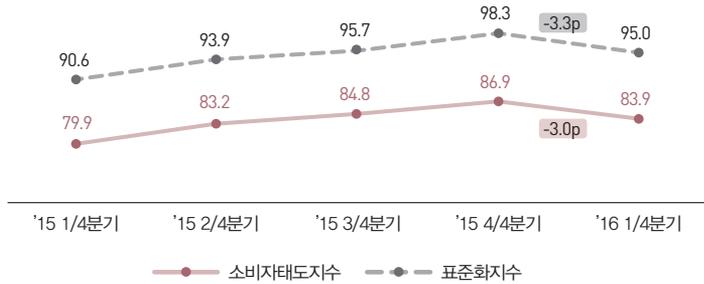
2016년 서울시민의 체감 경기는 하락으로 출발

② 표준화지수란 개별지수(5개 항목)의 평균값과 표준편차를 이용하여 표준화한 후 단순 평균을 산출하는 방식임. 연도별로 시계열 조사되는 결과값이 성별, 가구수, 직업 등의 인구통계적 요인에 따라 매 분기마다 변동이 있기 때문에, 이러한 변수들을 표준화한 값을 구하는 것임.

서울의 1/4분기 「소비자태도지수」는 4분기 만에 하락세

- 2016년 1/4분기 서울의 「소비자태도지수」는 표준화지수^② 기준 95.0으로 전(前) 분기 대비 3.3p 하락
 - 2015년은 지수가 꾸준히 상승하였던 반면, 2016년 1/4분기는 하락으로 시작
- 소비지출이 높아지는 신년과 설이 지나 당분간 소비심리 개선은 어려울 전망
 - 지난 연말 정부의 소비 유도 정책 등으로 체감 경기가 소폭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으나, 지속적으로 유지되지 못하고 하락세로 전환
 - 「대형소매점 판매액지수」가 급상승하는 등 소비지출이 늘어났으나 이

는 연말과 신년 특수가 겹친 것으로, 실질적인 소비심리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판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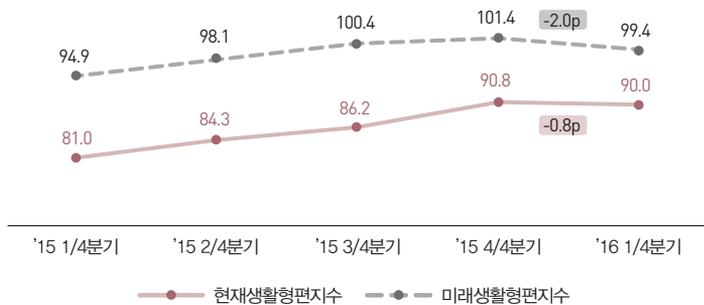


자료 통계청, 경제활동인구조사

〈그림 4〉 서울의 소비자태도지수

서울의 현재와 미래 생활형편에 대한 기대감은 모두 하락세

- 2016년 1/4분기 「현재생활형편지수」는 전 분기 대비 0.8p 감소한 90.0, 「미래생활형편지수」 역시 99.4로 전 분기 대비 2.0p 감소
 - 「현재생활형편지수」는 2014년 4분기(79.7) 이후 이어지던 상승세에 제동
 - 「미래생활형편지수」도 2014년 4분기 이후 꾸준한 상승세로 최근 2분기 연속 기준치(100)를 상회하고 있었으나, 99.4로 전 분기보다 2.0p가 감소하며 다시 기준치를 하회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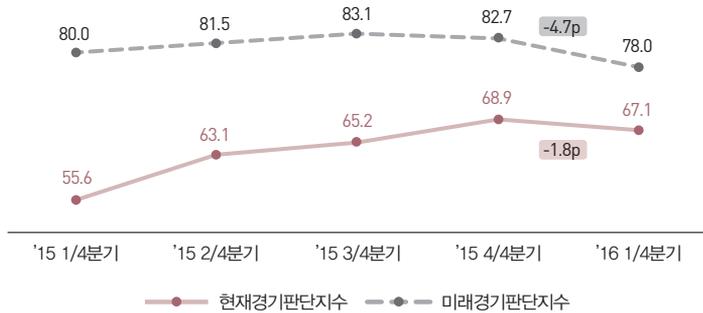
〈그림 5〉 서울의 생활형편지수

서울의 미래 경기에 대한 기대감이 낮은 상황

- 2016년 1/4분기 「현재경기판단지수」는 전 분기 대비 1.8p 하락한 67.1을 기록
 - 「현재경기판단지수」는 2015년 1/4분기 55.6의 저점을 기록한 후 2015년 4/4분기 68.9까지 3분기 연속 상승하였으나, 이번 분기 67.1로 다

시 하락하는 등 기준치(100)에 크게 미달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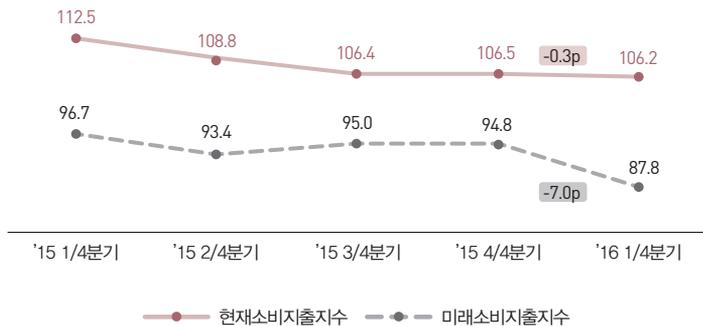
- 2016년 1/4분기 「미래경기판단지수」 역시 78.0으로 전 분기보다 4.7p 하락
- 「미래경기판단지수」는 「현재경기판단지수」보다 2배 이상 큰 폭으로 하락하며 70대를 기록하는 등 향후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크지 않은 상황



〈그림 6〉 서울의 경기판단지수

서울의 현재 소비는 큰 변화가 없으나 미래 소비는 최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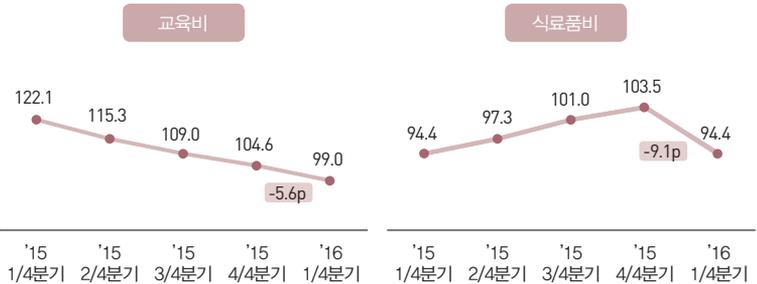
- 2016년 1/4분기 「현재소비지출지수」는 106.2로 전 분기와 비슷한 수준
- 「현재소비지출지수」는 1년 전에 비해 다소 낮았으며, 전 분기 대비 0.3p 하락하였으나 큰 차이는 없는 수준
- 그러나 2016년 1/4분기 「미래소비지출지수」는 87.8로 7.0p의 큰 폭으로 하락
- 「미래소비지출지수」는 2014년 1/4분기 이후 전반적인 하락세였으나 그 중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한데다 최근 5년 중 최저치를 기록하여, 향후 소비에 대한 기대치는 낮을 것으로 예측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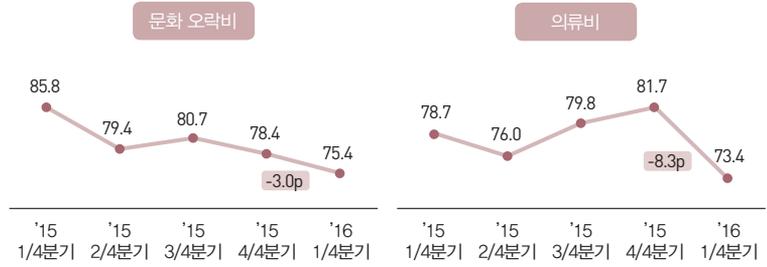


〈그림 7〉 서울의 소비지출지수

미래소비지출은 모든 품목에서 지난 분기 대비 하락하였으며, 기준치를 하회

- ‘교육비’는 전 분기 대비 5.6p 감소한 99.0을 기록하며 기준치(100)를 하회
 - 다른 품목이 상승하던 시기에도 하락 중이던 ‘교육비’는 4분기 연속 하락에도 불구하고, 가계 지출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
- ‘식료품비’, ‘주거비’, ‘의류비’는 일제히 큰 폭으로 하락
 - 2분기 연속 상승하며 지난 분기 기준치(100)를 상회하였던 ‘식료품비’와 ‘주거비’ 품목은 전 분기에 비해 각각 9.1p, 9.0p 하락하며 기준치를 하회
 - ‘의류비’ 역시 8.3p가 떨어지며 ‘문화오락비’보다 낮은 수치를 기록
- ‘교통/통신비’와 ‘문화오락비’도 91.5과 75.4로 각각 6.6p, 3.0p 하락
 - 6개 품목이 모두 큰 폭으로 하락한 가운데, 상대적으로 ‘문화오락비’의 감소가 크지 않은 편
 - ‘문화오락비’는 ‘의류비’와 함께 소비지출지수가 평균적으로 가장 낮은 품목으로 더 이상 크게 낮아지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, 그 외 의식주를 포함한 대부분의 품목에서도 소비를 줄이려는 심리가 강하게 작용
- 지난 분기까지는 ‘교육비’, ‘식료품비’, ‘주거비’에서 기준치인 100을 웃돌았으나, 2016년 1/4분기에서는 기준치를 상회한 품목이 부재
 - 전 품목에서 기준치를 밑돌아 향후 소비심리가 쉽게 살아나기 어려울 것을 시사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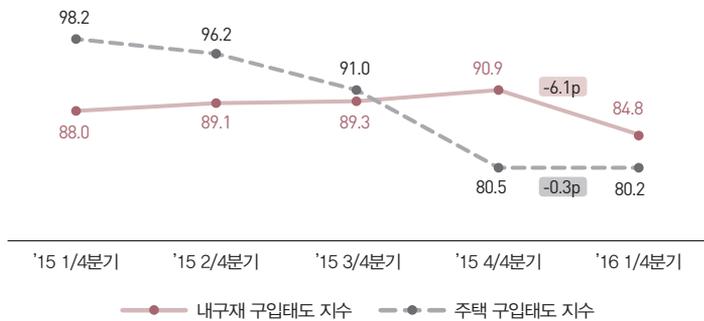




〈그림 8〉 품목별 서울의 미래소비지출지수

서울시민의 내구재구입 의사 크게 저하

- 2016년 1/4분기 「내구재 구입태도지수」는 전 분기 대비 6.1p 하락한 84.8
 - 2015년 1/4분기 이후 회복세에 들어서 3분기 연속 증가하였으나, 기준치(100)를 넘지 못하고 다시 하락세로 돌아서는 등 소비심리 위축
- 「주택 구입태도지수」는 80.2로 전 분기보다 0.3p 소폭 하락
 - 2015년 1/4분기 이후로 3분기 연속 큰 폭으로 하락하였으나, 2016년 1/4분기는 전 분기에 비해 큰 변화가 없어 하락세가 어느 정도 멈춘 것으로 판단
 - 그러나 지수가 80.2로 기준치를 크게 밑돌아 주택구입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반영



〈그림 9〉 서울의 내구재 및 주택 구입태도지수

순자산을 비롯해 물가예상, 고용상황전망 모두 상승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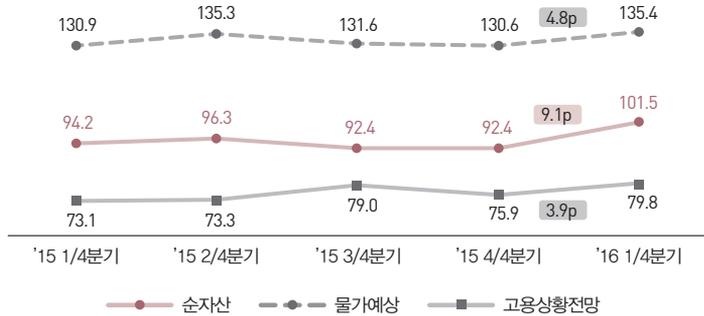
- 2016년 1/4분기 「순자산지수」는 전 분기보다 9.1p 오른 101.5를 기록
 - 지난 4분기 동안 큰 변화없이 유지해오다 큰 폭으로 상승
- 「물가예상지수」도 전 분기 대비 4.8p 오른 135.4로 비교적 크게 상승하여

향후 체감물가 역시 상승할 것으로 예상

- 최근 저점이었던 국제 유가가 다시 반등세이며, 환율도 꾸준히 오르고 있어 체감 물가상승률이 심화될 전망

• 「고용상황전망지수」는 3.9p 상승한 79.8

- 2015년 1/4분기 이후 고용상황에 대한 시민들의 전망은 가장 긍정적이나 여전히 80 이하로 낮은 수준



〈그림 10〉 서울의 순자산지수, 물가예상지수, 고용상황전망지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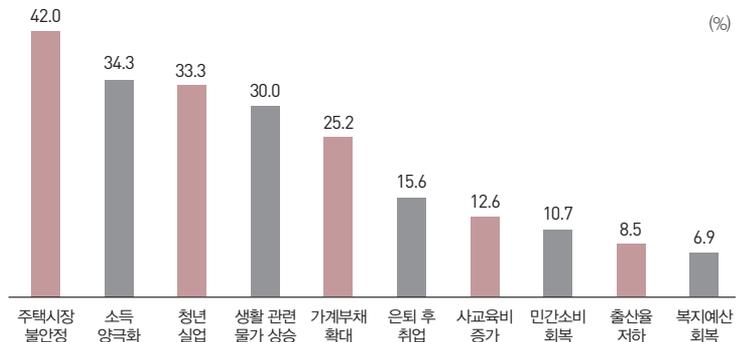
Ⅲ. 서울시민의 관심 경제 이슈

서울시민의 최대 관심 경제 이슈는 주택시장 불안정

20대 국회에서 가장 관심을 가져야 할 서울 경제 이슈는 주택시장 불안정

• 새롭게 출범하는 20대 국회에서 가장 관심을 가져야 할 경제 이슈로 서울시민들은 ‘주택시장 불안정’(42.0%)을 선정

- ‘소득양극화’(34.3%), ‘청년실업’(33.3%) 문제도 30% 이상을 차지하였으며, ‘생활관련 물가 상승’(30.0%), ‘가계부채 확대’(25.2%)도 높은 편
- ‘출산율 저하’(8.5%), ‘복지예산 회복’(6.9%)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



〈그림 11〉 서울시민의 관심 경제 이슈